전라도에 산다는 것은 행복이다. 전라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단 한 번도 명예롭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우리는 간혹 그 행복과 명예를 잊거나 부정하곤 한다.

외지인이면서도 전라도를 우리보다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이곳에 살며 전라도 사람보다 더욱 전라도인으로 사는 이들을 만났다. 이들을 통해 항상 곁에 있어 가볍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 우리가 간직하고 이어가야 갈 아름다움과 문화 등 우리가 몰랐지만 다른 이들이 사랑한 또 다른 전라도를 얘기하고자 한다.

"아름다운 자연 벗삼아 꿈 이뤄갑니다"

'코리아 브라운' 찾아 함평에 뿌리 내린 '꽃반지 끼고' 가수 은희

전라도는 한국 문화의 寶庫 하나하나 연구하며 지켜가야

취재 계획이 잡히고 그녀의 노래를 찾아 들었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 준 꽃반지 끼고.' 귀에 익은 멜로디에 실린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앳됐다. 스무살 시절의 노래다. 취재 약속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40년 세월은 그녀를 비껴간 듯,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청아했다. "이곳에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추워요. 조심히 오세요. 단장하고 있어야겠네(웃음)."

'꽃반지 끼고'의 가수 은희(59)씨가 살고 있는 곳은 함평군 손불면 한 폐교다. 제주 출신에, 가수생활을 하고, 뉴욕에서 패션을 공부를 하고, 압구정동에 의류매장을 운영했던 '도시 여자'가 전라도 촌구석에 둥지를 튼 사연은 무얼까.

한창 주가를 올리던 그녀는 결혼과 함께 도미, 뉴욕주립대에서 패션을 공부했다. 1985년 귀국 후 제주도 시장에서 감으로 물들인 갈옷을 발견하고 "이거다 싶었다"는 그녀는 1989년 본격적인 감 염색 작업에 착수, 갈옷 제품을 내놓고 천연염색가로 변신했다.

천연염색에는 적당한 해풍이 필수인 터라 바닷가 1km 인근의 폐교를 염두에 두고 보길도부터 보령까지 40여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2003년 함평군의 제안으로 염색 재료인 감이 많이 나고, 바닷가와도 가까운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 시댁이 영암이고, 시어머니가 수피아여고 출신이다. 남편 고향도 목포여서 전라도땅이 아주 낯선 곳만은 아니었다.

"압구정 매장을 정리하고 시골에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죠. 블루진과 '제대로' 싸워 보려고 이곳으로 왔어요. 내가 만든 색은 '코리아 브라운'이예요. 감, 황토, 된장, 초가집을 상징하는 색이죠. 남도 감으로 만들어낸 천연의 색입니다. 푸른 하늘,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이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사실, 처음 마을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는 건 힘들었다. 합격점수를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한창 공사중이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막걸리와 두부를 손에 쥐어주고 갔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었다.

폐교에는 '민예학당'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리노베이션을 거쳐 디자인연구실, 판매장, 작업장, 공연장과 황토방을 만들었다. 1년에 두 번 무박 2일로 문화난장을 연다. 탤런트 고두심, 연극인 박정자, 가수 채은옥·이동원 등이 다녀갔다. 전라도 음식 나눠먹고,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고, 막걸리 한잔 하며 즐겁게 논다. 이날은 주민들에게도 흥겨운 잔칫날이다.

"난장에서 '품바' 공연을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작품 속에 인생이 있더군요. 전라도의 좋은 자산인데, 정작 전라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전라도는 한국 문화의 보고(寶庫)예요. 천천히 하나하나 리서치하는 게 필요해요. 공장이 수천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전라도는 느리게 가더라도 너무 돈돈하지 말고, 문화자산들을 지켜가면 좋겠어요."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준 함평에 노래 선물도 했다. 나비축제 주제가 '나비 따라'다. 그녀가 나즈막히 불러준 노래 가사는 이렇다. '봄바람이 살랑대는 초록 5월엔/ 꽃길따라 꿈을 꾸듯 나비 따라간다.'

'꿈을 꾸듯' 흘러든 전라도는 또 한번 꿈 꿀 수 있게 해줬다. 그녀는 염색 원단 마케팅을 위해 25년만에 다시 뉴욕으로 떠난다.

"이곳은 눈도 얼마나 아름답게 내리는 지 몰라요. 해지는 모습은 어떻구요.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르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참, 공연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끼 있는 전라도 친구들 마음껏 와서 공연도 하고, 놀다 가라고 써주세요. 먹을거리는 준비해 오구요.(웃음)."

오랜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KBS '7080 콘서트'에서 섭외전화가 끊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언젠가 기타를 둘러맨 그녀를 TV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함평=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제 2의 고향 광주에서 음식점 사장님으로 변신한 '원조 잠수함' 한희민과 아내 김현정씨.

광산구에서 '남도의 맛'에 도전하는 왕년 프로야구 스타 한희민

"넉넉하고 포근한 인심에 반했어요"

거센 말투·행동 오해도 했지만 친근한 표현이 바로 남도 경쟁력

"포근한 인심에 반해 찾은 전라도, 남도의 맛에 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원조 잠수함' 한희민(49)이 광주 광산구 왕동에 훈제오리 전문점인 '한희민의 산골이야기'를 차리고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한희민은 1986년 빙그레(현 한화)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삼성 그리고 대만무대를 누비며 '원조 잠수함'으로 사랑을 받았던 왕년의 프로야구 스타.

KIA 타이거즈의 코치로 광주와 인연을 맺고 또 광주에서 자신의 인생을 펼치고 있지만 한희민은 세광고를 졸업한 충청도 토박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야구와 인연을 끊고 낙향, 충북 영동 산골에 찻집을 차리고 난초를 키우며 야인생활을 하기도 했었다. 부모님도 대전에 살고 계신다.

하지만 충청도 사나이 한희민은 전라도를 제 2의 고향으로 삼았다. '사람'이 그의 발길을 잡았다.

한희민은 "한화도 그렇고 함께 운동을 하고 활동을 했던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많이 고향을 떠났다. 오히려 이곳 광주에 정을 나누고 사는 이들이 더 많다"며 "그동안 거칠고 치열한 야구 무대에서 살았는데 남도의 넉넉한 풍경만큼이나 사람들이 좋아서 전라도에 마음이 끌렸다"고 말한다.

성균관대 재학시설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던 장채근 전 KIA 코치는 한희민의 듬직한 지원군이다. 두 사람은 지금도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돈독한 정을 쌓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에서 연을 맺은 아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한희민은 지난 2004년 선배의 소개로 만난 TBN 광주교통방송 김현정(40) PD와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은 여섯살배기 그리고 이제 4개월이 된 두 딸의 아버지가 됐다.

한희민은 "인생의 대부분을 야구만 했던 사람이라 야구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삶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광주에 터전을 잡았다"고 말한다.

그의 가게는 이름처럼 산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틀고 있다. 고요한 자연의 품이 좋아 왕동저수지를 마주한 곳에 차린 가게에는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마중하는 간판은 물론 세세한 가게 인테리어까지 손재주가 좋은 한희민이 직접 담당했다. 장작을 패고, 한희민표 황토화로에 오리 훈제를 만드는 등 주방일도 한희민의 몫이다.

마운드에서 도전적인 야구인생을 살았던 한희민에게 '남도의 맛'은 그의 앞에 주어진 또 다른 도전과제다.

요리가 취미였다는 한희민은 "야구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가지 음식을 맛봤는데 남도의 다양하고 깊은 맛은 최고다. 훈제를 할 수 있는 황토 화로도 직접 만들고, 여러가지 한약재를 넣은 십전대보탕도 고안하는 등 맛의 고장에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곳곳에 그의 손길이 묻은 가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년이면 자취를 감추게 된다. 가게 앞 왕동저수지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음식점 부지에 길이 나게 된 것이다.

그는 "정든 가게지만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는 예약이 필요한 메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남도의 맛을 알리고 싶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나서고 싶다"고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또 다른 고향 전라도에 바라는 것은 푸근한 인심만큼이나 푸근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한희민은 "다른 지역에서 전라도 하면 거친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실제로 말투라던가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같다. 친근한 말과 표현이 더해지면 남도의 경쟁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